

김두관·손학규 무등산서 대권 기지개?

‘한나라당’ 간판 15년만에 내린다 29일까지 공모... 30일 새 당명 확정

내일 지지자 수백명 동행 동시 산행 산중에서 조우 가능성... 정치권 관심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두관 경남지사와 손학규 민주통합당 전 대표가 오는 28일 동시에 무등산 산행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손 전 대표도 대권 도전 의지가 확고한 상태여서 이날 두 인사의 산행은 대권 도전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이날 두 인사는 산중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사람들은 세상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에 따르면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회원 등 300여명과 함께 28일 오전 10시 문빈정사를 앞을 출발하여 장복까지 왕복하는 일정의 산행을 한다.

이 산행은 노무현재단이 마련한 자리. 재단은 참여정부의 유력인사 및 명망가들을 초청, 광주시민들과 산행

을 함께하며 참여정부의 정책과 철학을 공유하는 의미에서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무등산 노무현길'을 산행하고 있다.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이 있는 김 지사는 이날 '지방, 분권, 자치' 등을 화두로 산행을 하며 다음달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손 전 대표도 같은 날 5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 무등산을 등반한다.

손 전 대표는 대표 재임기간인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총 154일간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산행은 매월 두 번으로, 첫 번째 산행은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 시작되어 다음달 28일 오후 2시 30분, 그 후 매월 둘째 주 일요일로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권 도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친노그룹 사이에선 김 지사의 대권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의 호남 측근들도 이 가능성 때문에 조직을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분당 보궐선거 승리 이후

알려졌다.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회원 500여 명이 광주 각지에서 오는 만큼 교통이 수월할 광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통합 과정에서 홀대론이 나온 호남 민심을 다독이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측근은 "2006년 출범한 동아시아미래재단은 매년 백범기념관에서 산년하례회를 열었는데 올해는 대선 출정식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 새해 맞이 등산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산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산행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번 산행을 두 인사의 자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새해 각오를 다지고 결속을 도모했다.



손학규 전 대표



김두관 경남지사

최고지도자를 기록하다 최근 부진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손 전 대표도 이제 연말 대권을 향한 '기지개'를 켜야 할 시기. 때문에 이번 무등산 등반은 손 전 대표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실상 대선 출정식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양측에서는 대권 도전과는 상관 없는 오래 전에 예정된 행사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지사의 측근은 "대권 도전 의지를 공식화할 적이 없다"고, 손 전 대표의 측근은 "당분간은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한국과 우리 정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어서 '출정식' 등의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당명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한나라당' 간판이 1997년 창당 이후 1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4·11총선을 2개월 반 앞두고 비박 끝 위기에 놓이면서 민중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에 이어 또 한번 새 옷으로 갈아입는 변신을 시도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과 외면을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선택한 전략적 카드인 셈이다.

비대위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결정했다고 확

열할 대변인이 전했다. 당명과 함께 당 로고도 개정하며 한나라당 상징인 파란색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당명 변경은 지난해 4·27 재보궐선거 참패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연패하자 당명 변경 요구가 거세졌다. 결정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이 었다.

지난해 중순까지도 "국민신뢰를 얻어내면 당명을 바꾸는 것도 논의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박근

해 비대위원장이 새해 들어 겁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여론을 지켜보며 당명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남권 출신 의원들 중 상당수가 당명 변경에 부정적이어서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국민 공모 절차를 거쳐 30일 비대위와 의원총회에서 새 당명을 확정하게 된다. 이어 다음달 3일 전국위를 소집해 새 당명을 승인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지역 하수슬러지와 가족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부지내에 들어섰다. 이 곳에서는 매일 330t의 슬러지를 건조해 하루 66t의 유기성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게 된다. <광주시 제공>

문재인 지지율 급상승... 양강 맹추격

(박근혜·안철수)

“박근혜 광주 출마해야 한국정치 쇠신하는 길”

좋은정치 연대 조민 대표

좋은정치연대 조민 대표는 26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4·11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재단 부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치·경제 학술단체 ‘좋은정치연대’의 신년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한 “박 비대위원장의 광주 출마는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박 비대위원장이 광중에 출사표를 던진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와 이에 기반을 둔 보수·진보의 공존구도가 한순간에 깨질 것”이라며 “나아가 한나라당 중진의원들도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준공

하루 330t 슬러지 처리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가족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지난 14일 준공됐다.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수슬러지와 가족분뇨는 올해 1월부터, 음식물류 폐

기물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오는 2013년 1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들어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국비 118억원 시비 277억원 등 총 사업비 395억원이 투입됐으며,

매일 330t의 슬러지를 건조, 자원화함으로써 하루 66t의 유기성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게 된다.

슬러지를 가공해 생산되는 유기성 재생에너지는 발열량 3000kcal/kg 이상으로 저품질 석탄의 발열량과 비슷하며, 이는 1일 28t의 석탄사용량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폐기물로 기피 되어 왔던 하수슬러지가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고을노인재단 회원 5만명 넘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의 노인 회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2009년 6월 개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2010년 4월 개원한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이 5만 명을 기록해 26일 5만 번째 회원 환영행사를 가

졌다고 밝혔다. 광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9만7800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 지역 노인 4명 중 1명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회원으로 등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리얼미터, 박근혜 28% 안철수 28% 문재인 15%

채널A 등 조사, 문재인 38.4% vs 박근혜 46.7%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급 부상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1월 셋째 주 다차대결 조사에서는 박 위원장 28.8%, 안 원장 28.1%의 양강구도 속에서 문 이사장이 15.3%로 3위 자리에 올랐다.

문 이사장은 연초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후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경신하며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3.2%),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3.1%), 김문수 경기지사(3.0%) 등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여야 대권주자 양자대결에서도 야권 주자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안 원장의 지지율은 56.4%로 전주보다 3.1%포인트 높아졌지만, 박 비대위원장은 34.9%로 2.0%포인트 낮아졌다. 두 후보의 격차도 16.4%포인트

서 21.5%포인트로 벌어졌다.

동아일보와 채널A, 리서치앤리서치가 설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 원장이 51.8%로 박 비대위원장(39.0%)을 12.8%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다. 이는 한달 전 9.5%포인트보다 3.3%포인트 더 벌어진 수치다.

박 비대위원장과 문 이사장의 양자대결에서는 박 비대위원장이 46.7%, 문 이사장이 38.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한달 전 조사 때의 16.0%포인트에서 한자릿대인 8.3%포인트로 좁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년도 무역조정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2012년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목적

○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상담지원(컨설팅), 융자 등을 통하여 해당기업의 무역매회 회복 및 경영체 재구조

■ 지원사책

○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규모: 5억원
- 지원내용: 무역조정지원사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소요비용 보조)
- 지원한도: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 융자지원
- 지원규모: 275억원
- 지원대상: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중진공 자금시금자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시설: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정보화충진 및 서비스제공, 공장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보증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 운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 차감(기준금리) * 2012년 1분기 현재 기준금리: 3.10%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시중자금 8년 이내(가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가처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업체당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 5억원 이내)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 신청접수: 수시접수

- 접수처: 중진공 각 지역본부(문의·접수처 참조)
- 제출서류: 무역조정지원신청서 등
* 세부제출서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털사이트(www.tea.go.kr) 참조

■ 문의·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www.tea.go.kr)
- Tel.: 02) 769-6661~4, Fax: 02) 769-6665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www.sbc.or.kr)

■ 지원절차 및 신청접수

○ 지원절차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진흥공단